

## 교회 소식 및 광고

1.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.
2. 말씀을 생활화하는 성경통독(17주), 7days 범사 감사에 모두 참여합니다.
3. 말씀 나눔: 매일 보내는 말씀 묵상을 따라 기도하면서 참여 바랍니다.
4. 우리 주님의 **부활의 능력**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됩시다!
5. 성경통독: 제 5차 **도전 100일 성경통독**이 은혜 중에 진행(76일) 됩니다.
6. 기도회: 화요일 7시 중보 기도회. 4/26(수) 8시 Zoom 기도회
7. 점심: 송순란 집사님께서 대접하십니다. 강단미화: 조병기 권사님 드림.
8. 군선교 세례: 담임목사 내외는 군선교 세례 차 한국 방문(4/10-27)중이십니다.  
 \*\* 교회 학교와 청년부 사역 문의--김반석 목사(445)208-3527 \*\*  
 \*\* 기도 상담, 성경공부와 통독 문의--박종님 전도사(267)265-0369 \*\*  
 \*\* 성가대, 찬양팀 문의--반주자: 임현선 집사(215)869-7632 \*\*

## 향기로운 예물

### 지난주일 헌금 봉헌 (\$ 752.00)

**십 일 조:** 박동희 박종님, 송희복 송순란, 유혜영, 이진원 유금자, 조민연 우영자.

**감 사:** 김민택 김윤정, 박동희 박종님, 송희복 송순란, 이경원, 조병기, 무명.

**주일헌금:** 고향숙, 김반석, 조병기.

**선교헌금(7Days 감사):** 김민택 김윤정, 유혜영, 조민연 우영자, 조병기.

**특 별:**

## 2023년 교회 목표

### \*\* 후원하는 선교지 기도 제목 \*\*

1. 도미니카 (신현재) 지교회 개척 및 전도
2. 흑 해 (유동윤) 선교센터 건립, 사역자 양성
3. 콜롬비아 (김선훈) 사역자 재교육, 태권도
4. 피 지 (이성일) 신학교 교육, 원주민 전도

제15권 17호 2023년 4월 23일

영혼구원

제자양육

사랑의 섬김

담임목사 조병우

Rev. Dr. Byung Woo Cho

☎ 518-598-6380

byung4815@yahoo.co.kr

**필라등대교회**

Lighthouse KUMC of Philadelphia

137 N Easton Rd. Glenside, PA 19038

[www.lighthousekumc.org](http://www.lighthousekumc.org)

☎ 215-690-4919

주일 낮예배	오전 11:00
영어 예배	오전 11:30
새벽기도회	오전 6:00 (화-토)
수요기도회	저녁 8:00

# 주일 낮 예배

오전 11:00

인도: 김반석 목사

-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..... 엘림 찬양 단
- 합심기도 Prayer ..... 다 같 이
- ♣ 사도신경 Apostles Creed ..... 다 같 이
- ♣ 송 영 Spiritual Song ..... 다 같 이
-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..... 유금자 권사
-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..... 인 도 자
- 찬 양 Anthem ..... 찬 양 단
- ♣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..... 히브리서 10:19-25 ..... 다 같 이
- 설 교 Sermon ..... “인생의 피난처” ..... 김 반 석 목사
- 봉헌찬송 Hymn .....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..... 다 같 이
- ♣ 헌금봉헌 Offering ..... 찬송가 213장 (4절) ..... 다 같 이
- ♣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& Benediction ..... 김 반 석 목사

- ♣ 표는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.
- ♪ 즐겁게 식사하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♪

## 수요 기도회

밤 8:00 (ZOOM)

## 새벽 기도회

화~토 새벽 6:00

## 이번 주 섬김이

	낮기도	식사가도	친교 담당	안내, 헌금위원
이번주	유금자 권사	박종님 전도사	송순란 집사	조민연 박종님
다음주	조민연 권사	조병우 목사	우영자 권사	



### <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>

평양의 한 농촌 마을, 한 소년이 민들레 하나를 꺾어 힘차게 불었습니다. 사방으로 날아가는 흩날리는 풀씨들. 그중에 용감한 흩날리 하나가 더 살기 좋은 땅을 찾아 산과 물을 건너 북미 대륙까지 날아갔습니다. 그리고 민들레 씨앗은 어느 집 아름다운 앞마당 잔디밭에 떨어졌습니다. 낯선 땅이었기에 두려웠지만,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. 푸른 잔디들이 민들레를 보고 신기한 듯 호기심을 보였습니다. 비옥한 흙으로 자신을 덮으려고 하자 곁에 있던 잔디들이 말합니다. "이곳은 네가 정착할 땅이 아니야."

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. 민들레는 그곳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.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두세 배 노력해야 했습니다. 마침내 잔디밭에 혼자 노란 꽃을 피운 민들레는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. 그러나 주인이 마당으로 나와서 민들레 꽃을 보는 순간 질색하며 민들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. 뿌리가 깊이 박혀서 절반만 뽑혀 나왔고, 주인은 그 절반을 길가에 던져버렸습니다. 잔디들이 말했습니다. "우리가 말했잖아. 너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. 썩 꺼져!"

민들레는 주인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노란색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. 민들레는 잔디의 푸른색으로 동화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. 푸른색이 된 민들레는 살아남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. 민들레의 정체성은 노란색이기 때문입니다. 민들레는 다시 민들레 자신이 되기로 합니다. "비록 몇 주밖에 살 수 없을지라도, 수백 개의 하얀 씨를 만들어 널리 퍼뜨릴 거야." 민들레가 품은 새로운 꿈이었습니다.

이정용 박사의 <마지널리티>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. 사실 우리는 모두 민들레입니다. 머나먼 한국 땅에서 미국 땅으로 날아와 낯선 땅에 와서 뿌리내리고 살려고 남들보다 두세 배 열심히 일했습니다.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“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”(레 19:34) 아무리 힘들고 모진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거하는 삶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,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“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” (시 46:1)